



WEIGHT



한계를 넘어

세계를 향해

들어올려라

고양시역도팀



LIFTING



긴장감으로 물든 공기에 하얀 가루가 날린다.
 잠깐의 정적, 그리고 숨이 멎을 듯한 긴장감.
 그 끝에는 무거운 바벨이 하늘을 향해있다.
 장미란 체육관에서 만난 고양시 역도팀 선수들은
 호랑이 기운을 가졌다. 신기록을 향한 눈빛은 뜨거웠고,
 떨어지는 땀은 아름다웠으며, 기합 소리는 경이로웠다.
 단언컨대 고양시 역도팀 선수들의 에너지와
 열정이 노력을 만나 최고의 기량과 성적을
 만들어내고 있다. 땀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아는 고양시 역도팀 선수들의
 찬란한 이야기를 공개한다.

WRITER. 이예지

사람들은 역도가 곧 장미란이고, 장미란이 곧 역도인 줄 안다. 누가 더 무거운 바벨을 들
 어 올리느냐에 집중하느라 역도라는 경기보다 메달을 따고 금의환향한 선수에만 관심
 을 갖는다. 역도가 얼마나 대단한 운동인지를 모른 채 말이다. 역도는 고도의 집중력과
 순발력, 끈기, 인내, 탄력 등 수많은 감각을 완벽하게 다룰 수 있어야 하는데, 극한의 힘
 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모든 운동의 기본이라 할 수 있다. 최중근 감독이 이끄는 고양
 시 역도팀은 이 모든 것을 갖춘 국내 최강팀이다. 역도 여제 장미란 선수(2013년 은퇴)
 를 배출했으며, 현재는 출전하는 대회마다 상을 휩쓸고 있는 진윤성 선수, 어린 나이에
 도 높은 기량을 발휘해 큰 기대가 모이는 신록 선수, 세계랭킹 2위에 이름을 올린 박혜정
 선수 등 국가대표 선수들이 대거 포진되어 있다. 또 선배 선수 못지 않은 기량과 도전 정
 신을 가진 후배 선수들도 많다. 어디 그뿐인가. 최근 열린 진주아시아역도선수권대회와
 경기도체육대회에서는 18연패를 기록하며 역도 명가를 입증했다. 다시 말해 고양시 역
 도팀은 역도 꿈나무가 꿈에 그리는 팀, 현직 선수도 바라는 로망이다.